



5면

노인 일자리 창출 '홈플러스 카페마일' 개소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음 3월 28일) 제30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후보 결정

11개 시군 후보 경선 결과  
전주 우범기·군산 강임준  
익산 정현울·정읍 이학수  
남원 최경식·김제 정성주  
완주 국영석 등 '본선행'

고창 심덕섭·진안 전춘성  
무주 황의탁 등은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7일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를 포함 도내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이날 오전 도당 사무실에서 전북지역 11개 시군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는 이슬아 슬하에 현역단체장이 탈락하고, 가감점에서 후보 순위가 뒤바뀌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전주시장 후보에는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선출됐다.

우 후보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 이번 경선에서 40.42%를 득표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특히, 우 후보는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한 조지훈 후보에 모두 밀렸으나 정치신입 가점(20점)을 받아 전세를 역전시켰다.

우 후보의 정책 연대에 나선 임정엽 예비후보의 지지 세력이 큰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경선을 놓고 우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해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 각각 1위에 오른 조지훈 후보는 36.97%, 유창희 후보는 22.61%를 각각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익산시장에는 정현울 시장이 47.40%로 후보로 여유있게 결정됐다.

조용식 후보(35.72%)는 신인 가산점까지 얻었으나 역부족이었고,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16.89%에 그쳤다.



양용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발표에 참석해 경선 결과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군산에서는 강임준 시장이 49.40%를 얻어 문택규(31.47%), 서동석(19.12%) 후보를 제치고 본선행에 올랐다.

정읍에서는 이학수 전 도의원이 63.49%를 차지해 최도식(33.23%), 최민철(13.52%)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남원은 최경식 후보가 58.27%로 이상현(41.73%) 후보를 꺾고 1위에 올랐다.

김제에서는 정성주 후보가 37.16%를 얻어 재선에 도전한 현 시장 박준배(36.90%) 후보를 간신히 제쳤다. 이번 경선에서는 유일하게 현역 기초단체장을 제치고 1순위에 올랐다.

정호영 후보는 25.94%에 그쳤다. 부안은 현역 권익현 군수가 63.49%를 차지해 김종규(27.54%), 김상곤(8.94%) 후보를 따돌렸다.

완주는 국영석 후보가 45.14%로 이돈승(30.56%), 유희태(14.25%), 두세훈(10.04%) 후보를 제쳤다. 다만, 국영석 후보는 경선 1위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타진 도박 의혹에 휘말린 사건이 최종 후보 확정에 큰 변수로 부상했다.

장수에서는 최훈식 후보가 56.53%로

양성민(43.47%) 후보보다 다소 앞서 1순위에 올랐다.

한완수 후보는 안심번호 투표에서 앞섰으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면서 감점(20%)이 적용돼 고배를 마셨다.

순창은 최기환 후보가 56.80%로 권대영(32.93%), 장종일(10.26%) 후보를 물리쳤다.

앞서 민주당은 진안군 전춘성, 무주군 황의탁, 고창군 심덕섭 후보 등을 각각 단수 공천했다.

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르면 오는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29일 중앙당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서

전북도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중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로, 첫째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둘째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셋째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먼저 인수위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위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입주기업 세제·입지 등 기업활동 지원강화, 국제학교 및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 및 새만금 특별화계 도입을 통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통한 실행력 및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7대 지역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국민보고회를 오는 5월 4일 전북도에서 개최해 '전북지역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북공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유효상 기자

### 민주 전북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최종 후보자

(단수공천 후보 포함)

- ▲전주시장 - 우범기
- ▲군산시장 - 강임준
- ▲익산시장 - 정현울
- ▲정읍시장 - 이학수
- ▲남원시장 - 최경식
- ▲김제시장 - 정성주
- ▲완주군수 - 국영석
- ▲진안군수 - 전춘성
- ▲무주군수 - 황의탁
- ▲장수군수 - 최훈식
- ▲임실군수 - 한병락
- ▲순창군수 - 최기환
- ▲고창군수 - 심덕섭
- ▲부안군수 - 권익현

### 도, 그린수소·재생에너지 국비 반영 협조 요청

전북도가 국가예산 확보 고배를 바짝 당하며, 주요 핵심사업 국비 반영을 위한 재결집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신원식 정무부지사가 전북도의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산업' 선점과 기반 확대를 위해 산업부를 방문, 사업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신 부지사는 먼저 산업부 수소경제 정책관을 찾아가 예타가 한창 진행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 대응과 함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가 관건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 발전구매의무화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설계 및 기반시설 구축비로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디지털트윈 기반 비대면·온라

인 전기안전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중요 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디지털트윈 기술 개발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기반이 도내에 마련돼 있는 점을 들며, 전북에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신 부지사는 이어, 재생에너지정책관을 방문해서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대비해 가장 현실 환경에서 에너지 생산·전달·소비 전(全) 단계의 종합적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실증플랫폼과 시범선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유효상 기자



질병관리청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을 시행합니다.  
(위중증 환자의 약 85%, 사망자의 약 95%가 60세 이상)

###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19 4차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 **접종대상** :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 완료 4개월이 경과한 분 (1962년 이전 출생자)
- **접종방법**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연락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대리예약 가능 \*화이자·모더나 외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합니다.